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2030 #입시경쟁 #사교육고통 #해결 #대중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불수능 국가손배소 항소심 판결 규탄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2020.11.18.)

학부모 수험생 두 번 울리는 법원판결, 고교교육과정을 넘어선 수능 출제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0. 11. 18. 불수능 국가손배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규탄하고 고교교육과정 위반 수능 출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 사교육걱정은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여 불수능에 대한 국가손배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 이어 오늘 항소심 재판부도 학생과 학부모의 청구를 기각하기에 이룸
- ▲ 오늘의 법원 판결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킬러문항 출제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서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과 입시 고통은 가중될 것이기에 오늘의 판결을 심히 개탄함.
- ▲ 수능 출제 과정에서 교육과정 위반 소지에 대한 증거자료는 모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의 증거신청을 일절 기각함으로써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어떠한 핵심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원고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한 것임.
- ▲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2심 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불복하며 수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임
- ▲ 현재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라 대학별고사는 출제 전 과정에서 고교교육과정 위반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음,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 또한 대학별고사와 마찬가지로 출제전 과정에서 고교교육과정위반여부를 면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절실함
- ▲ 국가의 교육을 신뢰했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와 좌절감을 야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수능 출제 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며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교육걱정은 포기하지 않고 대국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0. 11. 18. 오늘 불수능 국가손배배상 청구 소송 2심 판

결을 규탄하고 고교교육과정 위반 수능 출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은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여 불수능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 이어 오늘 항소심 재판부도 학생과 학부모의 청구를 기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항 출제로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으로 내몰고 고교교육과정을 신뢰한 학생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좌절감과 배신감을 초래한 수능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교육걱정은 불수능 국가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불수능 출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오늘의 법원 판결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킬러문항 출제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서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과 입시 고통은 가중될 것이기에 오늘의 판결을 심히 개탄함.

지난 9월 사교육걱정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모의평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문제 분석 결과 수학 가형 30개 문항 중 3개, 수학 나형 30문항 중 2개가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불수능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킬러문항 출제가 여전한 것입니다.

EBS에서 공개한 문항별 오답률을 보면 가형 30번 문항은 오답률이 92.5%에 해당하고 수학 나형 30번 문항은 무려 97.1%에 달합니다. 특히나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문항은 수학 나형의 21번 문항으로 객관식 오지선다형 각각의 답지 선택 비율을 보면 5개의 답지 중 1개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20%에 근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학생들이 제대로 풀 수 없었으며, 대부분이 아무거나 찍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킬러문항이 등장하면 아이들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찍어서 맞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풀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난이도이기 때문에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충분히 풀 수 있게 출제했다’고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수능뿐만 아니라 수능을 대비한 모의평가가 사교육을 위한 시험인지 공교육을 위한 시험인지 정말 그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검색포털에서 킬러문항 또는 불수능을 입력하면 여전히 사교육 광고 이미지가 도배됩니다.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와 같이, 고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선 수능 출제는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 수능 출제 과정에서 교육과정 위반 소지에 대한 증거자료는 모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의 증거신청을 일절 기각함으로써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어떠한 핵심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기각 판결한 것임

안타까운 것은 재판과정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심에 이어 2심 또한 유력한 증거자료인 수능 출제문항 검토의견서 제출을 기각하였습니다. ‘수능 출제문항 검토의견서’는 출제위원들이 수능 문항 초안을 작성하면 이에 대하여 검토위원들이 출제 문항에 문제없는지를 확인하여 검토의견을 낸 문서입니다. 교육과정 위반의 쟁점을 다루는데 거의 유일한 유력한 자료였기 때문에 기각 결정에 대한 아쉬움은 더 컸습니다. 이와 별도로 재판과정에서 **현직 수학교사 55명이 교사임을 용기있게 밝히며 2019학년도 수학 수능 출제에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10명의 수학교사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적된 수능 문항들이 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인지를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현직 교사의 의견서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되어야 하고, 수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며 수학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해야 하며,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내에서 제시된 명가 문항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답형과 선다형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아닌 수학 공식 암기와 수학적 사고력이 아닌 고난이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계적인 풀이 연습을 요구하고 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나형의 17번, 20번, 21번, 29번, 30번 문항, 그리고 ‘수학 가형’의 14번, 16번, 18번, 19번, 20번, 29번, 30번 문항이다. 이 문항들은 특정 문제해결 전략을 기억해야 하거나, 교육과정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수학 기호를 사용하여 교육과정 문서의 성취기준과 평가 기준에 맞추어 성실하게 학교에서 수업 및 평가 받은 학생들이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난이도 문제집과 이를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주는 사교육 기관의 도움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현직 수학교사들은 수능의 고난도 문항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평가 기준에 맞추어 성실하게 수업 및 평가를 받은 학생들이 해결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수능 전문 강사들도 입을 모아 학교 교육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문항 출제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도 법원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 권위와 재량을 인정한 것입니다.

■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2심 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불복하며 수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제대로 된 증거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법원의 판단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수일 내에 뜻을 함께 해주신 원고들의 의견을 모아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수능 출제 과정에서 고교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없이 이루어진 판단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법원에서는 문항검토의견서의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한결같이 기각해왔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결정에 포기하지 않고 이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수능 문항검토의견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수능은 대한민국 사회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12년간의 학업의 성취 정도는 판단하는 척도이자 대입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입은 계층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국가는 더욱더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유불리가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증거자료로서 문항검토보고서는 이 과정이 공정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근거이자 검토 자료가기에 재판과정에서도 문항검토의견서를 기초로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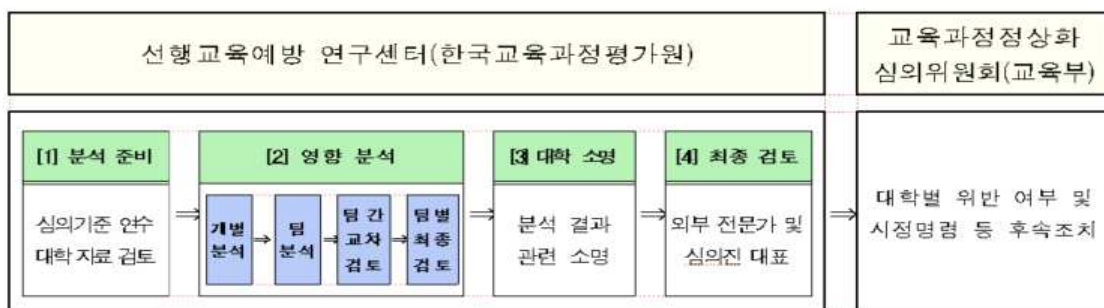
■ 현재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라 출제 전 과정에서 고교교육과정 위반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음,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 또한 대학별고사와 마찬가지로 출제전 과정에서 고교교육과정위반 여부를 면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절실함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규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학교의 선행 문항 출제를 막고 교육과정을 위반한 출제에 대해서는 법령의 절차에 따라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표1] 선행교육규제법 대학별고사 관리 감독 규정

| |
|--|
| <p>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p> <p>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 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대학 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대학 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
|--|

[그림]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른 대학별고사 선행문제 출제 관리 절차



2020. 11. 12. 교육부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보도자료

특히 대학별로 선행학습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별 고사 문제 출제시 고교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향후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촘촘하게 고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표2] 고교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검토 항목

| | |
|-------|---|
| 출제 전 | 고교교육과정(필요시 교과서 등) 분석 출제전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
| | 출제 검토위원회에 대한 고교교육과정 사전 연수 |
| 출제 과정 | 검토위원 중 고교 교원 참여 비율 |
| | 고교교원의 출제 검토과정에서의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 |
| 출제 후 | 출제검토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개선 노력 |

대학별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 재구성

이러한 관리 감독 덕분에 출제 교육과정을 위반한 출제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교육부,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은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킬러문항을 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논리입니다. 지금이라도 담당부서의 전문 인력 및 모니터링 과정을 수능 출제와 연계하여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선행교육규제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 또한 대학별고사와 마찬가지로 출제 전 과정에서 고교교육과정위반 여부를 면밀히 관리 감독할 것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의 교육을 신뢰했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와 좌절감을 야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수능 출제 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며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교육걱정은 포기하지 않고 대국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

국가의 교육을 신뢰했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와 좌절감을 야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수능 출제 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며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교육걱정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학능력시험은 학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출제 기관인 국가는 국가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학교교육 형해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할 뿐만 아니라 고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 방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코로나와 불안감과 시간과 싸우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험생의 노력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수능 출제의 문제를 바로잡고 학부모와 학생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 11. 1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구분창(02-797-4044/내선번호 511)
공동대표/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402)